

공간민들레가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청소년
이대로도 괜찮은지 고민하는 학교 밖 청소년
자유로운 건 좋지만 혼자선 외로운 홈스쿨러
학교를 넘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싶은 중고등학생
나를 이해하며 삶의 힘을 키우고 싶은 청소년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학습공동체, 공간민들레에서 한 해 동안 함께 배우고 성장할 15~19세 청소년을 초대합니다. 공간민들레는 1년제 전환교육 과정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활동을 통해 배움의 힘을 키우는 청소년 학습공동체입니다.

일 년 동안

프로젝트 활동, 그룹미팅, 말과 글, 문화예술 수업 외 자치활동이나 소모임 같은 협업, 소통 과정을 통해 배우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활동은 '스스로 배운다' '함께 배운다' '넘나들며 배운다' '하면서 배운다'는 교육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교육 활동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지원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신청자에게는 개별로 연락해 면담 일정을 정합니다. 면담은 평가나 선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청소년이 민들레의 일 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 과정입니다.(마감: 1월 31일)

지원서 링크 | <https://forms.gle/LqFN9UesTqxZdazV6>

홈페이지 | www.mindle.org 이메일 | mindle00@gmail.com

문의 | 02-322-1318, 010-8863-3103 (길잡이 교사)

I 민들레는

공간민들레는 90년대 말, 교육관련 책을 내는 민들레출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청소년들이 출판사를 다수 찾아와 자발적인 모임을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 모인 청소년들은 단순한 커뮤니티 활동을 넘어 '서로 배우고 스스로 배우기'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이 '배움의 공동체'가 씨앗이 되어, 2002년 '공간민들레'를 설립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민들레는 1년제 교육과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나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나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나와 사회를 연결 한다'는 "자기 길 찾기" 활동과, 목표를 정하고 계획-실행-평가를 직접 하면서 배우는 힘을 키우는 "프로젝트"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여년 넘게 실천해온 민들레의 교육과정은 공교육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 고교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 우리의 활동은?

1.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을 연다.
2.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을 실천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위한 1년 진로탐색 학습과정을 무학년 통합과정으로 운영한다.
4. 청소년 진로교육의 의미와 특징을 개념화하고 대안적 모델을 구조화한다.
5. 우리 사회가 가진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교육을 실행한다.
6. 우리의 실천을 정리해 사회와 나누는 활동을 한다.

I 교육내용

1. 한 주간의 흐름(2019년 예시)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30~10:00	아침열기 / 배움의 준비						
10:00~11:50	그룹미팅	시민학	소모임	프로젝트			
11:50~13:10	점심시간						
13:10~15:00	그룹미팅	기초교양	소모임	프로젝트	통기타	심리학	세계사
15:10~17:00	자치회의 & 자치활동	기초교양	사진		그룹미팅		
교육장소	정독도서관 오디세이교실	정독도서관 오디세이교실	성북 민들레	새활용 플라자	양재 오디세이교실		

2. 일 년의 흐름(2019년 예시)

일시	활동명	활동 내용
3월 4~15일	오리엔테이션	- 교육공간 민들레 학습과 생활에 대한 안내 - 전환여행 안내와 준비
3월 17~22일	시작을 위한 전환여행	- 1년의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몸과 마음의 재구성 - 개인별 교육활동 계획, 시간표 만들기 - 1년을 함께 할 동료들과의 멤버십 형성
3월 29일	맞이식	- 시작을 알리는 의식, 1학기 보호자 모임
4월~7월	1학기 활동	-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활동을 하게 됨 (그룹미팅, 프로젝트, 말과 글, 소모임 외)
7월 17~18일	한 학기 돌아보기	- 한 학기의 평가지점을 돌아보며 하반기를 설계함
8월 18일~12월	2학기 활동	-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활동을 하게 됨 (그룹미팅, 프로젝트, 말과 글, 소모임 외) - 가을학기 여행, 2학기 보호자 모임
12월 30일	마무리 발표회	- 1년의 과정을 마무리 하고, 서로의 배움과 성장을 나눔 - 한권의 책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나누고 축하함
2020년 2월	수료활동	- 다음과정의 진로를 찾아보며 준비함 -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의 시간

3. 주요 교육활동

1) 시작을 위한 전환여행

교육공간 민들레의 교육과정은 다른 현장과 달리 문턱이 조금 낮은 틈새학교 또는 전환학교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지만, 이 과정 안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뿐 아니라, 배움에 대한 생각, 생활에 대한 생각들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전환'의 과정은 조금 낯선 곳에서 일상을 살아내고, 집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일 년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일상을 살아내면서 '전환'을 몸과 마음으로 하나씩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일 년 동안 함께 살아갈 어른과 동료와의 관계 형성도 이 안에서 이루어냅니다.

2) 그룹미팅

자신의 배움과 성장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은 일상의 배움을 자신과 연결해 맥락화 하고 해석하고 연결하고 기록하기를 주요하게 합니다. 10명 내외의 그룹 단위의 활동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 나간다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각자의 교육활동을 그룹 구성원들과 주고받으며, 자신의 학습과 성장을 객관화하고 검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타인의 학습과 성장을 지켜보면서, 배움이라는 것이 개인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적 경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룹미팅의 주요 활동에는 '자기 길 찾기 과정'도 있습니다. 이 과정의 내용적 흐름은 '나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나와 세상과의 연결'입니다. 지속적인 일상 나눔과 다양한 도구(인생의 타임라인 외)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나 세상이해 특강 등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갑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기는데,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꼭 필요한 질문을 완성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집요한 토론과 인터뷰를 하는 여행을 떠납니다. 그 다음 본격적인 나와 세상과의 연결을 위한 인턴십 및 인터뷰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 역시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객관화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자신의 입장을 세우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체의 과정을 자신의 맥락으로 풀어낸, 자신만의 자기 길 찾기 '책'을 만들게 됩니다.

3) 프로젝트활동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활동입니다. 민들레는 '스스로 배우고, 서로 배우고, 하면서 배우고, 넘나들며 배우기'라는 교육원리를 명심하고 운영하는데, 이 교육원리를 가장 잘 녹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프로젝트 활동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한 다양한 실행과 배움이 연결됩니다. 그리하여 '배우는 자'로서의 태도나 힘을 키워나갑니다.

그룹미팅과 마찬가지로 팀 단위로 활동해, 팀 안에서 치열하게 질문하고 사유하고 비판하고 협업 하면서, 배우는 자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갑니다. 2018년에는 '민들레디오', 'Paint It Band', 'B-sports', '성큼성큼', '셔블'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새활용플라자'와 연계하여 활동할 예정입니다.

4) 1년의 배움을 한 권의 책으로

'기억은 기록을 이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심하며, 1년의 과정을 기록하고 정리해 한권의 책을 만듭니다. 프로젝트, 그룹미팅, 그밖에 다양한 수업활동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맥락을 가지고 자신의 1년의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나는 배우는 자로 서 나갔는지', 또 '내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인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천천히 정리하고, 가다듬는 활동들을 그룹미팅을 통해 일상적으로 하게 되며, 12월 초 집중적으로 책 만들기 작업을 합니다.